

여성, 몸, 테크놀로지의 관계 짓기:

‘여성되기’ 관점을 위한 시론

이동후* · 김수정** · 이희은***

이 연구는 젠더연구에서 몸과 테크놀로지가 가지는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여성’이라는 범주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성되기’의 진행적인 과정임을 제시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젠더 정체성은 여성과 테크놀로지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관계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몸’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먼저 페미니즘 연구와 젠더 연구 전반에서 몸에 대한 담론이 진행되어온 과정과 의미를 탐색했다. 이어서 몸과 젠더의 관계에서 테크놀로지가 갖는 위치를 살펴보고, 몸이 젠더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정체성이 구성되기도 하는 담론의 장이자 물질적 장소임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몸과 젠더와 테크놀로지의 삼자관계에 집중한 사이버페미니즘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여성되기’에서 테크놀로지가 갖는 역할과 의미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결국 여성되기에 있어서 테크놀로지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일은, 일상의 경험 세계에서 몸이 지니는 담론적이고 실천적인 의미에 대한 숙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했다. ‘여성되기’의 가능성은, 몸-젠더-테크놀로지의 접합방식과 과정에 대한 탐구를 통해 젠더의 (재)구성을 살펴볼 때만 상상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젠더, 몸, 테크놀로지, 여성되기, 사이버페미니즘

1. 문제제기

2012년 1월,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멤버인 정봉주 전 의원의 구명을 요구하는 여성의 비키니 인증샷이 세간의 뉴스가 되었다.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비판할 것 같은 진보적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주목의 대상으로 만들며 진보 정치에 관여시켰기 때문이다. 화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 사진을 보고 외설적 장난기로 ‘코피 터짐’을 운운한 <나꼼수> 멤버의 반응에 대해, 그동안 <나꼼수>와 연대를 펼쳤던 인터넷 커뮤니티들인 일명 ‘삼국카페’ (화장발, 소울드레서, 쌍화차코코아)가 비판 성명서를 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그동안의 진보적 연대에 균열과 파열을 초래했다는 사실은 이 전체 사건이 가진 복잡성과 중요성에 비해 아주 경미한 것에 불과할지 모른다. 이 사건은 여성의 몸을 둘러싼 상이한 시선들, 여성의 정치적 실천과 젠더, 여성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남성 헤게모니적 담론들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그 성명서를 낸 ‘삼국카페’가 화장, 패션, 성형 정보를 나누기 위해 모인 온라인 여성 소비자 공동체라는 점이다. 자본주의의 소비 지향적 외모 담론에 의해 구성된 소비주체가 동시에 ‘개념 찬’ 정치적 참여를 거침없이 전개해왔다는 사실은 우리의 기존관념을 배반하는 의외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성 주체와 젠더 정체성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다양한 지점에서 분열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donghoo@incheon.ac.kr), 주저자

** 충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sukim@cnu.ac.kr)

***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helee@chosun.ac.kr), 교신저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건 폭발의 시발점이 된 ‘비키니 시위’와 몸에 대한 관심을 실천하는 삼국카페의 행동은 우리의 시선을 ‘몸’의 문제에 집중하게 만든다. 후기 근대사회에서 몸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염려는 다이어트와 보디빌딩에서 성형수술과 종합건강검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대중의 일상적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험관 수정, 삽입 및 이식수술, 그리고 인간복제 등 현대 과학지식과 최첨단 테크놀로지는 우리의 몸을 조형해 내면서 몸을 가변적인 물질로 재구성하고 있다. 개인의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몸 프로젝트의 부상은 몸이 “단순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리적 실체인 것만이 아니라 행위체계이자 실천양식”임을 의미하고 있다(Giddens, 1991, 99쪽). 몸은 더 이상 추상적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복수의 선택 가능성 앞에 놓여 끊임없는 성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의 몸이야말로 자본과 노동의 유연성 강화 그리고 그에 따른 욕망의 발명 등,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맥락에서 가장 부산하게 재배치되고 있는 자본이자 자원이 되었다(박미선, 2005, 142쪽). 오늘날 우리의 몸은 점차로 더욱 감시되고 훈육되며, 한편으로는 자본으로 또는 신체 없는 기관으로 절편되어 유통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통해 네트워크화 되고 있음을 경험한다. 주체성의 가장 굳건한 토대라고 느꼈던 몸이 조형가능하고 재의미화 되는 시대에, ‘여성’은, 아니 더 넓게 ‘젠더’는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는 것일까? 더 나아가 우리는 여전히 여성을 찾을 수 있고, 또 찾아야 하는 것일까? 젠더와 ‘몸’은 어떻게 서로 관계되며, 여기에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 것일까?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한국 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 젠더 이슈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여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는다. 이 길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간 여성주의적 시각의 연구들은 미디어에서 여성의 재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성과를 올렸다(백미숙, 이종숙, 2011). 그러나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놀라운 발전은 재현의 문제로 포섭될 수 없는 다기한 젠더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하는 몸과 젠더의 관계는 새로운 여성주의적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여성’이라는 범주를 고정된 것이 아닌 진행적이고 과정적인 것, 즉 ‘여성되기’로 재인식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환경과 맞물려 기획되는 테크놀로지가 여성과 갖게 되는 관계성을 재설정해야 할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한국커뮤니케이션학계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몸과 젠더와 테크놀로지의 ‘삼자 관계’를 인식론적으로 성찰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젠더에 있어서 ‘몸’의 문제를 새롭게 천착해 가면서, ‘여성되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여성되기’에 있어서 테크놀로지는 어떠한 위치를 갖게 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몸에 대한 페미니즘 담론의 지형을 더듬어보고, 몸과 젠더, 그리고 몸과 젠더와 테크놀로지의 관계를 차례로 짚어본다. 또한 이러한 관계를 사이버페미니즘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여성되기’에서 테크놀로지의 역할과 의미를 숙고해보았다. 이 글은 몸, 젠더, 테크놀로지 각각에 관련된 페미니즘 논의를 심화시키거나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특정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기보다는, 몸과 젠더와 테크놀로지 간의 인식론적 ‘관계 짓기’를 시도해 보는데 무게를 둔다. 이를 통해 부족하나마 현재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환경에서의 여성 주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론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왜 몸이 문제인가?

1) 심신이원론과 젠더

몸에 대한 인식은 동양과 서양이 크게 다르고, 각각의 영역 내부로 들어가 보면 더 많은 사상의 분기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페미니즘은 분명 서구 근대성의 산물이었고, 서구 근대성 역시 우리 자신에게서 완전히 분리해 낼 수 없을 만큼 이미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되어 버린 타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몸에 대한 인식을 구성한 서구 사상과 그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전유와 도전을 ‘젠더’와 ‘몸’의 관계 속에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몸’은 서구 주류 철학사상에서나 페미니즘에서나 “개념적 맹점”으로 남아 있었다(Grosz, 1994, 53쪽). 플라톤 이래로 데카르트와 헤겔의 근대철학에 이르기까지 인간에 대한 인식론은 정신과 육체가 대립하는 심신이원론이 주류를 차지해왔다. 이러한 심신이원론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본질로서 정신(이성)을 취급하며 그것에 특권적 위치를 부여했다. 그와 대조적으로 육체는 주관적인 감각, 감정, 본능적 욕구 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기 어렵고 따라서 현상을 넘어 존재하는 진리 추구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평가절하 되어 왔다. 일례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명제야말로 인간 존재의 알리바이가 나의 몸이 아니라 사유(이성)에 달려있다는 가장 극적인 선언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몸이란 그저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로서 인간 의식을 담는 단순한 용기에 지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몸이 세계와 맺게 되는 다양한 존재방식과 실천양태, 그를 통한 인간과 인간을 보듬고 있는 세계의 동시적 상호구성은 사유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정신/육체의 이원론은 이성/감정의 이분법, 문화/자연의 이분법, 그리고 마침내는 남성/여성의 이분법과 등치되어 함께 사고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항 대립쌍들에서 전자(정신, 이성, 문화, 남성)는 함께 가치절상 되고, 후자(육체, 감정, 자연, 여성)는 전자와 대조되어 가치절하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이원론들은 이성과 합리성, 공적 영역을 남성의 특성이자 영역으로 할당하고, 여성은 “생물학적인 몸에 갇혀있는 존재”로 간주하여 남성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해왔다(김진아, 2005, 21쪽). 따라서 몸에 대한 페미니즘의 개입은 젠더 권력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론적 및 인식론적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점은 근대 사회과학의 선두였던 사회학도 이러한 심신이원론에서 자유롭지 못해, 몸에 대한 관심이 거의 부재했다는 사실이다. 쉐링(Shilling, 1993)에 따르면, 사회학은 일반적으로 몸을 자연과 개인에 속한 것으로 간주해서 일찍부터 학문적 관심 밖에 놓아 왔고, 몸과 관련해서는 주로 언어와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만 연구해왔다. 몸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페미니즘 운동,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 그리고 고도 소비문화의 등장으로 인해 몸의 의미에 대한 대중의 위기감이 불러일으켜진 시기이다(Shilling, 1999, 56쪽). 그렇다면 몸에 대한 페미니즘의 인식론적 개입은 어떤 양상으로 펼쳐졌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젠더/성차가 몸과 갖는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¹⁾ 제한된 지면 탓에 몸과 관련된 페미니즘

1) 페미니즘 내부에서조차 성차와 젠더에 대한 통일되고 합의된 개념을 찾기는 힘들다. 다만 용어의 사용을 시기적으로 볼 때, 초기에 생물학적 성별 차이를 의미하던 ‘성차’가 점차로 이후에는 사회학적 성별 역할로서 ‘젠더’ 개념, 그리고, 나아가 최근에는 섹슈얼리티의 차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점차 포괄성을 띠며 사용되는 듯하다. ‘젠더’

연구나 그와 영향을 주고받은 몸 철학을 일일이 다루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연구가 목표하는 바도 아니다. 이 글은 몸과 관련하여 서구 페미니즘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민하였는지를 주목하고, 특히 몸과 젠더의 관계에 있어 ‘여성-되기’라는 문제의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페미니즘의 개입: 몸과 젠더

페미니즘, 더 넓게는 성차 또는 젠더 관련 연구들은 몸과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두 가지 쟁점에 관여하고 있다. 하나는 젠더 차별적 권력관계가 이성과 정신의 소유자로서 남성, 그리고 감성과 육체에 갇힌 여성이라는 심신이원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신이원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젠더’와 ‘성’을 어느 정도로 생물학적인 몸과 연관시킬 것인가이다. 전자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페미니스트들은 서구철학사에서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대립되는 철학을 전개한 스피노자, 니체, 메를로퐁티 등 소위 몸 철학자들을 소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메를로퐁티는 서구 주류철학의 주지주의적 관점이 인간 주체를 단지 의식과 사유주체에 불과한 것으로 보며 세계를 정신의 구성물로 취급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나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은 나의 의식이나 정신이 아니라, 세계, 타인과 적극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몸”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데카르트의 명제를 뒤집는다. 그리고 인간은 몸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사물을 향하는 ‘신체적 의식’(embodied consciousness)이고, 인간주체는 근본적으로 ‘체화된 주체’(또는 몸주체, embodied subject)라고 주장한다(Merleau-Ponty, 1962, p. 138, 김진아, 2004, 25쪽 재인용). 그는 자아와 타자(세계)가 인식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 속에서 몸을 매개로 상호이입 또는 교직하는 체험을 강조한다.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철학이 페미니즘에 남겨준 것은 첫째로 의식과 신체의 불가분성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해 살아있는 경험에 주목하게 된다는 점이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2세대 페미니스트의 슬로건 역시 이러한 철학에 의해 정당화된다. 둘째는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에 있어서 상황의 중요성이다. 이러한 상황적인 주체, 산 체험은 특히 시몬 드 보부아르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보부아르는 “나의 몸이 사물이 아니라 상황이며, 세계에 대한 포착이고 우리의 투사”이기 때문에 “여성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성의 본질이 아니라 여성의 상황을 봐야”하고, 그로써 여성의 미래가 충분히 변화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고 주장한다(Beauvoir, 1989, pp.714-715, 김진아, 2005, 41쪽). 1990년대 이후 부상한 페미니스트 역시 이러한 몸과 정신의 이분법을 거부하는 전통을 계속적으로 세우며, 이를 위해 몸에 대한 사유의 이미지를 다양한 상징을 통해 바꾸려 한다. 엘리자베스 그로츠(Grosz)가 정신과 몸이라는 이분법을 해체하는 은유로서 ‘뫼비우스 띠로서의 몸’을 제안하고, 정신과 몸의 경계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일 것이다.

페미니즘에서 몸에 대한 두 번째의 쟁점은 여성 또는 젠더가 얼마만큼 생물학적 몸과 연관된 것인가의 문제에 놓인다. 1960년대 등장한 제 2세대 페미니즘 운동은 산아제한과 낙태권을 정치적

개념 역시 초기에는 생물학적 성별과는 다른 사회적 역할과 그에 준하는 관념 및 가치로서 여성성을 의미했는데, 이후에는 여성성만이 아닌 남성성을 포함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성차’와 마찬가지로 섹슈얼리티의 차이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퀴어 진영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차’와 ‘젠더’는 가부장제 저항하는 페미니즘이나 이성애주의에 저항하는 퀴어 모두에게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저자에 따라 그 선호가 달라지는 듯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젠더’와 ‘성차’의 용어 간에 특별한 의미차이를 두지 않고 섹슈얼리티 차이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의제로 설정하며 몸을 정치적 행동과 저항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페미니스트 학자인 파이어스톤(Firestone, 1971)은 성별에 따른 노동 분업이 ‘재생산하는 여성의 몸’에 기초한다고 보고 생물학적인 몸을 가부장제의 근원으로 지목한다. 따라서 확실한 피임기술을 통해 예측상태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했는데, 몸에 대한 이러한 자연주의적 관점은 비록 몸을 가부장제 논의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불평등한 성 계급체계를 생물학적 본질론에 근거시킨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Shilling, 1993, 56-57쪽).

그에 비해 차이를 강조하는 2세대 주류 페미니스트들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학적 범주로서 젠더를 구별함으로써, 보부아르의 표현을 빌자면, 여성으로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만들어진다는 구성주의 관점을 전개한다. 그러나 사회화 과정에서 여성으로서 명명되고 분류되고 역할하면서 여성으로 구성된다는 초기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남성과의 성차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데, 이는 암묵적으로 백인, 중산계급, 이성애자로서 1세계 여성들을 보편적이고 단일한 ‘여성’ 일반으로 전제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로써 페미니스트의 성에 기초한 ‘차이’의 정체성은 인종, 종족, 계급, 섹슈얼리티, 연령의 무수한 차이를 가로지르고 접속되면서 여성 내부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페미니즘 내에 확산시키게 된다. 게다가 담론을 통해 주체가 구성된다는 미셸 푸코(Foucault)를 비롯한 후기 구조주의 철학은 ‘담론을 통한 주체구성’을 제기함으로써 구성주의 관점을 더욱 급진적으로 재구성한다.

푸코에 따르면, 몸은 훈육, 규제, 감시되면서 동시에 욕망의 생산지점으로서 담론을 통해 섹슈얼리티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인식은, 다양한 차이가 보편적 범주로서 ‘여성’ 또는 ‘젠더’ 범주를 균열시킨 것을 넘어 2세대 페미니스트들이 공유했던 최소한의 지점, 즉 젠더로서 사회화되고 구성되기 이전에는 적어도 생물학적으로 구별되는 몸이 존재한다는 최소한의 전제마저 위협하기에 이른다. 정화열(2005)은 능동적 존재로서의 몸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사회 세계와 연결된 땀줄을 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이제 과연 무엇을 젠더 정체성의 정치학의 토대로 삼아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설상가상으로, 페미니스트들의 이러한 고민은 주디스 버틀러(Butler, 1990)의 등장으로 더욱 첨예하게 된다. 버틀러는 『젠더 트러블』(1990, 33쪽)에서 젠더란 “육체의 반복되는 양식화”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실체, 즉 존재의 자연적 요소라는 외양을 생산하기 위해 매우 견고하게 규정된 틀 안에서 반복되는 일련의 행위들”이라고 주장하며, 생물학적 몸에 기초한 성차를 부인한다. 이는 젠더가 수행성(performativity)의 결과에 다름 아니며 몸이 젠더화된 담론의 외부에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젠더에 대한 인식에서 생물학적 유착이나 전(前)담론적 몸을 끊어버리는데 가장 선도적인 기여를 한 버틀러를 비롯해서 후기 구조주의 철학을 본격적으로 전유하는 다양한 3세대 학자들(예를 들어 해러웨이, 이리가라이, 보르도, 그로츠)은 1990년대 초부터 페미니즘 논쟁에 참여한다(Budgeon, 2011, 1쪽). 이들은 몸의 물질성과 가변성, 그리고 경계를 부수는 몸의 잠재성에 주목하며 기존의 성차에 기초한 여성의 억압과 배제를 전복하고자 하는데서 공통점을 드러낸다. 물론 이들 간에 존재하는 차이 역시 만만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수잔 보르도(Bordo, 1997)는 히스테리를 앓는 여성이 아내의 역할과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남근 중심적 질서를 전복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페미니스트들을 비판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해석 속에는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고 있는 히스테리 여성 환자의 현실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르도는 실제 삶과 몸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문화적 재현만을 문제 삼는 것을 경계한다. 한편 가야트리 스피박(Spivak)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포스트식민화와

토착의 카스트계급이 교묘하게 얹혀서 인도의 하위주체 여성의 몸에 억압과 착취의 경험을 각인시키는 과정이 결코 낭만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몸의 물질성으로 드러냄으로써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여성 하위주체의 재현 불/가능성을 모색한다(김영주, 2005). 그렇다면 이러한 3세대 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 논의들은 과연 여성과 몸의 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젠더/성차는 모두 담론의 수행성 결과이지만, 여성의 몸이 겪는 체험과 물질성은 여전히 젠더정치학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을 다시 암시하고 있는 것인가?

3) 신자유주의 시대의 ‘몸’과 ‘여성되기’

3세대 페미니스트들의 몸에 대한 다양한 입장 중 로지 브라이도티의 개입은 주목할 만하다. 박미선(2005, 144쪽)이 적절히 요약하듯, 그는 ‘체현(embodiment)’과 ‘성차’를 주체이론에 재각인하며 성차를 존재론적 차이로 긍정하면서 인식론으로 담론화하며 페미니즘의 정치기획을 모색한다. 브라이도티가 비판적으로 전유하는 철학자는 들뢰즈와 가타리(Deluze & Guattari)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몸의 역동성, 육체적 물질성, 그리고 가변성을 주장하며 생산으로서 욕망을 통해 ‘되기(becoming)’라는 생성의 철학을 주장한다. 『천개의 고원』(1980)에서 들뢰즈와 가타리는 생물학적으로 고정되거나 단일한 몸이 아니라 리좀(rhizome)과 같은 형상으로 목적론적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자기를 둘러싼 것들과 연결되고 접속하면서 동일하지 않은 복수들을 생성하며 뻗어가는 사유의 이미지를 제시한다. 따라서 유목적 주체는 끊임없는 변신의 주체이자 끝없는 ‘되기’에 열려있는 과정중의 주체이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논의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되기’의 철학에서 여성을 위치시키는 방식이다. 그들은 “모든 되기는 여성-되기를 통해 시작하며 여성-되기를 지나간다. ...여성-되기는 다른 모든 되기의 열쇠이다”라고 말한다(Deluze & Guattari, 1980/2001, 526쪽). 이러한 주장은 일견, 남성지배 사회에서의 차별과 착취를 몸으로 체현하는 여성 존재를 부각시키고, 동시에 모든 ‘되기’란 ‘여성되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체험을 특권적 위치에 놓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여성-되기’의 주장이 여성을 오로지 남성들이 자유자재로 변신할 수 있는 공간적 표면으로 위치시킨다고 비판한다(Jardin, 1985, 217쪽, 박미선, 2005, 153쪽 재인용). 브라이도티 역시 이들 두 남성 철학자에게 여성은 자신들의 실제 체험을 말하기도 전에 보편적인 주변자로서 위치되어 은유로서만 작동하게 된다고 예리하게 비판한다. 그러나 더 치명적인 비판은 들뢰즈의 ‘되기’ 이론과 유목적 주체론이 “전지구적 자본이 차이를 억압하기보다는 포섭하고 증식시켜 시장을 확대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또는 다르게 보이는 정체성/주체성을 매혹적인 ‘상품’으로 가공하고” 있는 현 상황에 조용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담론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박미선, 2005, 171~172쪽).

그러한 비판과 우려는 실제로 1990년대 대중문화를 통해 가시화되기 시작한 포스트페미니즘(post-feminism)으로 인해 더욱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2세대 페미니스트들이 이론 성과의 수혜자로서 이들 포스트 페미니스트 젊은 여성들은 <섹스 앤 더 시티>, <브리짓 존스의 일기>, <엘리 맥빌> 등의 인기 드라마를 자신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삼으며, 여성들이 더 이상 젠더적 불평등과 제약을 겪지 않고 자신의 자유와 선택을 행사하며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이명호, 2010). 가부장제가 여전히 강고하게 구조화된 소비주의 사회에서 가부장적 남성의 시선에 맞춰 자신의 몸을 색시하게 개조하는

여성들이 오히려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강조하고 성적 주체성을 주장하는 모습은 페미니스트 미디어 문화연구자인 안젤라 매크로비(McRobbie, 2009)는 ‘가짜 페미니즘’(faux-feminism)에 다름 아니며, 가히 페미니즘의 죽음 선언으로(Modleski, 1991)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몸’ 인식론에 대한 페미니즘의 개입을 통해 우리는 ‘여성되기’에 대해 무엇을 이해하게 된 것일까? ‘여성되기’란 어떠한 것일까? 가장 첫 번째로 ‘여성되기’란 먼저 몸과 정신의 이원론을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인간 역사에서 몸의 복원은 역사에서 여성의 복원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비가시화되고 재현될 수 없었던 여성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서, 세계 내적 존재이자 상황적 존재로서 몸을 위치시킴으로써 사회연결성을 주체의 핵심에 놓는 사유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여성되기’는 세계와의 접촉을 필수로 하며 그로 인해 다중의 상황에 분열적으로 위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중의 정체성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계와의 연결에서 이뤄내는 물질적이자 상징적 실천의 결과이다. 둘째로 ‘여성되기’란 ‘젠더’ 뿐 아니라 ‘몸’도 그리고 ‘성’ 조차도 처음부터 답론을 통한 반복적인 수행성의 결과임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몸의 성향과 체험과 기억이 완전히 답론에 의해서 포섭되지 않는, 그 둘의 긴장에 위치하는 것이다. 즉 몸의 체현과 성치를 모두 초월해 버리지 않는 젠더 되기가 ‘여성되기’일 것이다. 따라서 결코 생물학적으로 환원되지 않으면서도 체현을 성찰할 수 있고, 결코 모든 것을 답론으로 환원시키지 않으면서 다양한 성차(심지어 계급, 인종, 연령, 섹슈얼리티 등까지 포함하는)와 교차하고 결합하는 젠더를 의미한다.

이러한 ‘여성되기’에서 본다면, 어쩌면 <나꼼수> 사건에서 나타난, 여성 몸의 전시(비키니 인증샷)를 자기권능화의 행위로 삼는 포스트페미니스트들의 자기 선택과 결정권을, 이러한 증식되는 다양한 차이들의 한 접면으로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진보적 행보와 가부장제 답론 아래 외모주의 실천을 함께 결합한 삼국카페 멤버들도 가부장제로부터의 탈영토화의 탈주와 재영토화의 긴장을 경험하며 끊임없이 전체 연결성과 지형을 바꾸고 있는 ‘되기’의 혼란스런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신자유주의 답론에 따른 수행이라 할지라도 체현의 실천을 통한 성찰이 탈주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리란 법은 없지 않겠는가. 분명한 것은 적어도 페미니즘의 논의로부터 얻은 ‘여성되기’의 면모가 젠더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야와 비전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젠더와 몸에 개입하는 테크놀로지,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배치를 결정하는 사회문화적 조건으로서 젠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진다. 왜냐하면 게임과 휴대폰에서부터 의료나 산업 테크놀로지에 이르기까지 테크놀로지를 통하지 않고는 젠더는 세계 속에 살고, 체험하고, 연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몸과 테크놀로지

1) 몸과 테크놀로지와 젠더

젠더와 몸의 관계에 관한 앞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서구중심의 철학과 과학의 역사에서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던 몸의 복권은 젠더(특히 여성)의 복권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몸이 주위 환경과 맺는 관계와 경험세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몸과 테크놀로지의 관계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여기서의 테크놀로지는 인간의 몸이 감각을 동원해서 경험하거나 육체적 형태로 재현하는 것,

즉 체현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안경이나 의족 등 신체 의 일부가 된 테크놀로지로부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처럼 우리의 경험세계로 스며든 테크놀로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로 우리 몸을 통제하는 미디어 테크놀로지로부터 출산과 유전자 등 재생산의 영역에 관여하는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몸과 테크놀로지의 이러한 체현 관계가 전적으로 새로운 일인 것만은 아니다. 테크놀로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시대의 지배적인 테크놀로지가 무엇인가에 따라 인간의 몸도 개념화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Thomas, 1995).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노버트 위너(Norbert Wiener)는 몸과 테크놀로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네 시기로 구분한다. 첫 번째 시기에는 인간의 몸을 콜럼처럼 여겨 자유로이 다룰 수 있다고 여겼다. 17~18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몸은 시계태엽장치에 비유되어 잘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 장치로 인식되었고,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산업시대에는 몸이 에너지를 연소하며 움직이는 증기기관에 비유되었다. 그러다가 1950년대 이후, 즉 위너가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할 무렵부터는, 인간의 두뇌를 컴퓨터에 비유하고 몸은 정보 시스템에 비유하기 시작했다. 인간의 몸을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후, 인간의 몸을 컴퓨터에 비유하는 논의는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함께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사이보그’(cybernetics+organism)라는 개념이 대표적으로 잘 드러내주듯이, 화학적, 생물학적, 의학적 테크놀로지가 인간 몸에 침투하여 스며들고 있는 현상에 관심을 갖는 논의다(예를 들어 브뤼노 라투르, 2009). 다른 하나는 해러웨이가 “기계는 두려울 만치 살아나고 있으며, 우리 인간은 무섭게 무력해지고 있다”(Haraway, 1991)고 천명한 것처럼,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자동기계(automata)에 대한 논의다. 이 두 논의들은 서로 방향은 다르지만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흐려지거나 재편되고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한다. 또한 인간의 몸을 정신과 별도로 분리된 존재이거나 정신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몸과 외부환경의 관계에 따라 인간 존재를 정의할 수 있다고 본다는 면에서도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정체성을 개인적인 것이기보다는 집단적인 것으로, 정적인 것이기보다는 역동적인 것으로, 그리고 일관된 것이기보다는 변화무쌍한 것으로 파악하는 문화연구나 사회이론과도 맥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정체성은 ‘우리가 무엇인가’이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혹은 ‘우리가 무엇이 되는가’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이유로 젠더 논의에서 몸과 테크놀로지의 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몸은 우리가 외부세계나 타자와 접촉함으로써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는 통로이자 매개이고, 테크놀로지는 몸을 연장시키거나 변환시켜 몸이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젠더 연구에서 몸이 가장 중요한 분석 범주가 된 이유는, 젠더만이 몸을 억압하거나 규정하는 유일한 요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몸에 각인된 젠더관계가 특정 시기의 테크놀로지(기술과 제도와 장치를 모두 포함한)의 특징과 권력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사실 산업사회 이후로는 과학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을, 이성보다는 몸을 자연에 더 가까운 관계로 설정하는 경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푸코와 하버마스를 비판하는 이유도, 단순히 젠더라는 분석 범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아와 타자 사이를 매개하는 몸의 의미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초기의 푸코는 인간의 몸이 지닌 주체성을 반박했고, 정신적 이성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던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에서 몸이 지닌 중요성을 망각했다는 것이다.

여성의 몸과 테크놀로지의 관계를 고찰하는 이론은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모든 지식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 상황적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한 해러웨이의 ‘상황적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주체가 행위에 선행한다고 보지 않는 버틀러의 ‘수행성’이다. 이러한 두 흐름은 이전까지 당연시 되던 젠더의 엄격함을 해체하는 역할도 했지만, 오히려 테크놀로지나 과학기술에 대한 절대적인 전망이나 맹신으로 나아가게끔 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마치 여성친화적인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킨다면 유토피아를 만들어내길라도 할 것 같은 과도한 기대와 환상을 가질 위험도 있는 것이다. 일부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해체주의적 인식이야말로 여성을 유전자로만 환원하는 생물학주의(biologism)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한다(에코페미니스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박혜영, 2011 참조).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를 단지 기술적 장치나 제도 뿐 아니라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우리의 몸과 생명과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 실상 바이오테크놀로지가야말로 여성의 몸을 임신과 출산을 담당하는 노동기계로 만들거나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는 소비재로 만들었으며, 젠더의 경계와 의미를 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처럼 테크놀로지가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여성의 몸을 시장논리에 맞게 재단해버린 결과, 생물학적인 성은 자의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고 젠더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던 노동 영역의 경계도 흐려지고 있다. 이를 두고 발사모(2012)는 인간의 몸이 테크노바디(techno-body)로 재개념화 되었다고 지적한다. 테크노바디란 이전까지 양립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분법적인 의미체계에 동시에 속하는 경계적인 형상을 뜻한다. 과연 이러한 테크노바디가 젠더 정체성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테크놀로지와 몸과 젠더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젠더화된 몸의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시대에는 몸이 그러하듯 젠더도 경계적인 개념이다. 젠더는 인간 몸의 생리적인 특성인 동시에 문화적인 권력관계이고,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가상현실의 시대의 몸은 더 이상 절대불변의 조건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사이버페미니즘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분법적인 구분(인간/인공물, 삶/죽음, 자연/문화)이 테크놀로지로 인해 흐려지거나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겨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체성과 관련된 몸의 표식들(인종, 계급, 섹슈얼리티, 젠더 등)이 사라진다고보다는 새롭게 구축될 뿐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거세다. 이 때 새로운 구축의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 또한 테크놀로지의 발전이며, 이를 두고 발사모(2012)는 푸코의 논의를 끌어와 ‘젠더화된 몸의 테크놀로지’라 부른다.

젠더화된 몸의 테크놀로지를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은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의료담론이다. 몸을 재구성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서 여성의 몸은 여전히 ‘자연적’인 것이자 ‘재생산’에 관련된 것이라는 문화적 의미로 남아있다. 발사모(2012, 27쪽)는 이러한 몸의 문화적 의미 속에서 젠더가 여전히 인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자연적인 표지로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미용성형수술은 서구적인 문화적 이상을 몸에 새겨 넣음으로써 몸을 감시의 시선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 과정에서 몸은 가시적인 매개체로 변형되고, 타인의 시각에 의해 관리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파편화되고 분절화된다(발사모, 2012). 성형담론에서 여성의 몸은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적인 기준에 따라 재편되는 물질적 장소이자 대상이 되며,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성형수술은 단순히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재건성형에 머물지 않고 결함을 제거하여 아름다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형수술 테크놀로지가 전통적으로 젠더화된 몸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는 것이다. 방사선촬영이나 모핑 등의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젠더의 이데올로기성을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감추는 일종의 가림막일 뿐이다.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거나 권력에 종속시키는 또 다른 테크놀로지 영역은, 인간의 인지범위를 재규정하고 감시기술의 확대를 가져오는 새로운 시각화 기술들이다. 몇 년 전부터 논쟁이 되고 있는 공항의 전신스캔 이미징 시스템은, 몸을 근대적 권력이 작동하는 물질적 바탕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다. 마그넷과 로저스(Magnet & Rodgers, 2012)는 특히 9-11 이후에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몸을 국가 거버넌스 수행에 효율적인 도구로 만드는 경향이 커졌다고 지적하면서, 몸이 여전히 국가와 경계와 미디어와 테크놀로지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가상이기는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전신을 알몸 수색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것은 마치 국가가 성폭행을 주도하고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한다. 게다가 이러한 공항 이미징 시스템은 “왜 공권력이 내 몸에 가하는 알몸 수색을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대신 “어떤 종류의 수색 방식이 더 나은가?”라는 문제를 내세움으로써, 마치 개인의 선택으로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듯 착각하게 만든다고 비판한다. 이는 사실상 신자유주의의 거버넌스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일종의 속임수일 뿐이라는 것이다. 마그넷과 로저스의 논문이 잘 보여주는 것은, 몸과 테크놀로지의 관련성은 반드시 명시적인 젠더성(여성성)이 드러날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남성/여성, 정신/몸의 이분법에서 여성은 몸과 연결되고, 따라서 몸을 수동적 대상으로 삼아 전신 스캔하는 공항 이미징 시스템은, 몸을 시각이나 감시의 대상으로 가버이 여기는 것으로, 즉 여성성에 대한 멸시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는 아직 공항 수색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지만, 정체성의 경계를 강화하는 테크놀로지의 역할은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데 필요한 서류인 여권의 예를 들어보자²⁾. 외교통상부가 제시하는 여권사진의 기준은 우리 몸에 작동하는 모든 테크놀로지를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안경은 평소에 착용하는 것 이외에 빨테 등 두꺼운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모자와 목도리와 컬러렌즈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웃는 표정을 하거나 얼굴을 기울여서도 안 되고, 소속단체를 드러내는 제복도 허용되지 않는다. 포토샵을 해서 안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들은 얼핏 몸에 가해지는 테크놀로지의 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상은 오히려 그 반대이다. 테크놀로지가 배제된 단순한 형태의 얼굴을 요구하는 것은, 국경을 넘나드는 몸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이고 디지털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작동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한 때 테크놀로지의 힘으로 자유로운 유희가 가능했던 몸의 정체성은, 이제 바로 그 테크놀로지로 인해 더 많은 제약과 통제 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테크놀로지의 탈육화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터클이나 해러웨이와 같은 학자들은,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기존 경계를 흐리고 다중 정체성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낙관론을 펼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의료 테크놀로지나 감시 테크놀로지 등의 사례에서처럼, 젠더화된 몸의 테크놀로지는 몸을 특정한 방식으로 체현되도록 규정하고 재구축하고 있다. 시몬 브라운(Browne, 2009)은

2) 여권사진 규정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참조 (<http://www.passport.go.kr/issue/photo.php>)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정체성과 산업의 복합체(identity-industrial complex)”라고 부르면서, 테크놀로지로 인해 개인의 몸은 점차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주넌(van Zoonen, 2013)도 테크놀로지가 결국은 정체성의 고착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인터넷 공간을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사용자가 실명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검증받게끔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미네르바 사건이나 타블로 사건 그리고 <니키폴> 비키니 사건 등이 예시해주듯, 테크놀로지로 인해 정체성의 경계가 흐려지기보다는 오히려 온라인 공간의 정체성과 실제 인물을 일치시키며 행하는 공격(소위 ‘신상 털기’)이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시각 테크놀로지야말로 남근중심적이며 가부장적인 질서를 재생산하여 남성/여성의 이분법을 강화하는 요소라고 비판한 이리가라이의 경고를 떠올리게 한다. 그가 구경꾼의 시각을 강조하는 남성적인 접근 대신에 몸의 참여적인 촉감을 강조하는 여성적인 접근을 강조했던 이유도, 테크놀로지 자체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가에 따라 해방의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테크놀로지와 정체성의 관계에서 권력관계를 읽어내는 이러한 학자들의 논의는, 그저 기술결정론으로 치부해버리기에는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테크놀로지만 본질적으로 권력관계의 중심에서 주변을 관리하는 경향을 떨 수밖에 없으며, 그 사회의 권력과 차별체계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는 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주넌(2013)이 적절하게 파악했듯이, 리얼리티쇼의 인기 또한 테크놀로지를 모두 벗겨낸 ‘실제’ 모습을 찾으려는 일에 대한 매혹이 상업화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본화되고 스펙터클화된 테크놀로지는 정체성에 잠재해 있는 다중성을 억누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단일한 정체성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탈근대적인 주체로서의 몸과 테크놀로지의 관계가 제시해주는 바는, 우리의 몸이 정해진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주위 환경을 포함한 ‘경계’의 개념으로 재개념화 되었다는 점이고, 바로 그 지점에서 몸을 둘러싼 의미체계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몸과 테크놀로지와 젠더의 관계에 대한 복합적인 논의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사이버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4. 젠더와 탈육화된 커뮤니케이션 공간

1) 사이버페미니즘: 젠더와 테크놀로지 관계에 대한 재고

젠더와 테크놀로지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사이버페미니즘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과 테크놀로지에 관한 페미니즘 연구는 주로 기계 장치 자체에 배태된 남성성, 남성 권력의 주요 근원으로서의 테크놀로지의 역할, 젠더 질서를 견고히 하는 테크놀로지 발전과 테크놀로지에서의 배제된 여성의 문제 등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Wajcman, 2010). 하지만 1990년대 초반에 출현한 사이버페미니즘은 테크놀로지와와의 관계를 젠더 논쟁의 하위 문제로 보지 않고 전면에서 내세우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갖는 새로운 전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론과 실천적 차원에서 정보커뮤니케이션기술이 가진 젠더 해방적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남성중심적 주류 사이버 문화뿐만 아니라 기존의 “본질주의적, 반(反)기술적, 성 대결적” 페미니즘과도 일정정도 거리를 두고자

했다(Fernandez & Wilding, 2003; Paasonen, 2011).

예를 들어, 1991년 사이버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호주의 여성 예술가 그룹 비너스매트릭스(VNS Matrix)는 “21세기를 위한 사이버페미니스트 선언문”을 통해 자신들이 사이버 공간을 “타락시키는 새로운 세계 분열의 바이러스”이며 “아버지 본체의 파괴자”이자 “도덕적 코드의 종결자”임을 표명한다.³⁾ 학계에서는 플랜트가 “여성화: 여성과 가상현실에 관한 성찰”(Plant, 1996)이란 글을 통해 여성 해방과 정보 기계의 발달이 궤를 같이 하면서 문화의 디지털화가 남성 중심의 체계모니에서 벗어나는 여성화와 같다고 주장한다. 브라이도티(Braidotti, 1996)도 여성들이 남근주의적 가치와 전형화된 여성성에서 해방되기 위해 “사이버공간에서 춤을 추며 즐거움과 긍정의 문화를 계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렇듯 사이버페미니즘은 정보커뮤니케이션기술(ICTs)의 여성주의적 전유를 시도하면서 등장했고, 젠더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관계에 관한 모든 여성주의적 이론과 실천을 포괄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사이버페미니즘은 “기술문화에서의 인간-기계 관계, 체화, 젠더와 행위성”을 주목하는 여성주의적 이론과 실천에서부터 “페미니즘 인터넷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페미니즘 논의를 포함한다(Paasonen, 2011). 따라서 90년대의 여성주의적 이론과 운동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 진행형의 페미니즘이고,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젠더 관계에 관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론에서부터 특정 기술 형식과 구체적 실천에 이르는 복수의 페미니즘이다.

초기 사이버페미니스트들은 정보커뮤니케이션기술이 누구나 네트워크에 연결해 세상을 경험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탈육화된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가능케 해줄 것이라고 보았다. 이 공간의 탈물질성, 접근성, 상호연결성, 익명성이 결국은 생물학적 성, 젠더, 섹슈얼리티에서 벗어난 탈젠더적 해방을 꿈꿀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본 것이다. 탈육화된 공간은 일상에서 제약으로 작용하는 차이와 몸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일종의 변형지대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한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O'Brien, 1999). 예를 들어 플랜트(Plant, 1997)는 이진법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세계를 비위계질서적이고 비선형적인 세계로 보고, 억압적인 젠더 체제에 저항하고 평등을 구현하는 여성 해방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테크놀로지에 잠재된 여성적 가치가 여성적 질서와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개인은 일상의 육체를 벗어나 텍스트의 형태로 추상화됨으로써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보편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졌고(Kelemen and Smith, 2001), 사이버 공간은 “젠더 상징과 정체성을 가지고 실험하는 놀이터, 몸에서 생산된 젠더 이분법과 경계로부터 벗어나는 공간”(van Zoonen 2002, p. 12)으로 이상화되었다. 이러한 탈육화된 공간에서는 개인이 성역할을 의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젠더 정체성의 실험(Turkle, 1995), 물리적 공간에서 불가능했던 ‘젠더 넘나들기’(Danet, 1998), 다른 젠더나 인종의 정체성을 전유하는 ‘정체성 관광’(Nakamura, 2002) 등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전통적 젠더 관계에서 벗어난 젠더의 상징이나 재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게릴라(Guerilla)와 라이엇걸스(Riot Grrrls) 등 예술적 실천 운동을 펼치는 페미니스트들은 사이버공간에서 반어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묘사나 유희적 표현을 사용하며 기존의 젠더화된 정체성에 도전하고 사이버공간을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항의 장소로 만들고자 했다(Braidotti, 1996; Garrison, 2000).

하지만 사이버페미니즘이 보여준 이러한 유토피아적 비전은 여러 반론에 부딪히게 된다. 반 주넨(van Zoonen, 2002)은 사이버공간을 주로 남성들이 기술적으로 설계, 제작, 발전시킨 남성지배적인 네트워크

3) <http://www.sysx.org/gashgirl/VNS/TEXT/PINKMANI.HTM>

라고 보고, 사이버페미니즘이 제한된 젠더 개념에 기초해 사이버공간의 여성성을 강조하거나 재현 수준에서만 젠더 개념에 도전하는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이버공간이 기존의 젠더 체계로부터 자유로운 공간 혹은 새로운 탈젠더적 주체형성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사이버페미니즘의 시각은 사이버공간의 사회적 조건뿐만 아니라 실제 개인 행위자들의 젠더화된 실천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였다. 그리고 실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이나 실천들은 종종 초기 사이버페미니즘의 기대에 어긋났다. 오브라이언(O'Brien, 1999)은 사이버 공간에서 탈젠더적 인물을 개념화하고 설정할 수 있더라도 실제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에는 대개 성별이 모호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용납되지 않고, 따라서 범주체계로서의 젠더가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켄달(Kendall, 2000)도 사이버공간에서 기존의 젠더구분이 존속하면서 백인, 이성애, 남성 중심의 위계질서와 문화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실제세계의 젠더 체계가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초기 사이버페미니즘의 유토피아적인 시선이 비판받았고, 더 나아가 ‘탈육화’라는 기술적 조건이 동일한 문화적 경험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나오게 된다. 특히 후자의 연구들은 초기 페미니즘의 단선적인 기술결정론적 시각이나 유토피아적 비전에서 벗어나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기술적 가능성이 여성의 온라인 이용과 실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문화적 함의를 갖는지를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인도의 콜센터에서 일하는 여성이나 중국의 마이크로칩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인터넷은 탈젠더적 전복을 꿈꾸는 테크놀로지라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일터이고(Millar, 1998), 이란의 여성에게는 현실의 가부장적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전통적 젠더 정체성에 저항할 수 있는 해방적 공간이 될 수 있다(Nourae-Simone, 2005). 인터넷의 상호연결성이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의 불평등한 노동관계를 재생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경계를 넘어 자신을 표현하고 전지구적인 차원의 지지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힘돋우기’의 저항적 정치성을 뒷받침해줄 수 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자아표현, 정체성 형성, 여성주의적 공동체 경험, 사회적 교류와 연대 방식 등을 제공하면서, 테크놀로지와 젠더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다. 인터넷 공간은 여성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유연하게 연대하며 여성주의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고(Harcourt, 1999; 김경례, 2007), 자아표현과 정체성의 새로운 경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Bortree, 2005; Kearney, 2006; 김수아 2008), 일상생활이나 대중문화 경험을 공유하며 여성주의적 저항과 즐거움 그리고 ‘힘돋우기’의 공간이 될 수 있다(이종수 최지혜, 2005; 김수아, 2006). 사례 연구들은 다양한 여성 집단에 따라,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이용과 의미화가 다르게 진행되고 다양한 여성주의적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연구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테크놀로지의 이용이 반드시 젠더 체계에 대한 저항이나 도전으로 이어진다고 단언할 수 없는 복합적인 면을 드러난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여성용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적인 고백과 감정을 교류하며 ‘힘돋우기’와 저항의 동학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러한 실천은 성별화된 여성공간 안에 제한된 것으로서 여성적이라는 젠더 범주를 재확인하고 재생산할 수 있다. “그를 한 대 때리지 못한다면, 사진을 찍어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Hollaback! NYC’ 사례도 이러한 양가적 복잡성을 보여준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거리의 성희롱에 저항하는 이 캠페인은 일종의 사이버페미니즘적 실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재현되는 성적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기존 젠더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강화할 수 있다(Daniels, 2009).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이용을 통해 기존 젠더 체제에 대한 저항과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이버페미니스트들이 처음 기대했던 것만큼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한 탈젠더적 해방이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하여 다양한 여성주의적 실천이 이루어지고 개인의 젠더화된 경험양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테크놀로지의 실천과 경험이 몸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과 경험을 통해 초기 사이버페미니즘이 천착했던 탈육화, 탈젠더화의 가능성이 구현되진 않지만, 젠더의 경계와 ‘되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탈육화’의 신화를 넘어서: 테크놀로지의 위치

초기 사이버페미니즘의 탈육화 테크놀로지와 해방의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해러웨이(Haraway, 1991)의 ‘사이보그’라는 메타포이다. 그는 다면적이며 결정 불가능한 정체성을 가진 “기계와 유기체의 잡종”을 상상해보고자 사이보그라는 개념을 제안했는데, 초기 사이버페미니즘은 이러한 탈젠더적 사이보그의 가능성을 사이버공간에서 찾고자 했다. 사이버공간의 탈물질성이나 익명성 그리고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상호연결성이 몸에 부과된 젠더 정체성을 벗어나 새로운 주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시각은 물리적 실재 공간과 기술적으로 매개된 공간 혹은 오프라인 세계와 온라인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한계를 갖는다. 몸의 표식이 지워진 사이버 공간을 이상화함으로써, 생물학적 성으로서의 물리적 몸과 문화적 구성으로서의 젠더라는 전통적 구분법을 답습하며 재현의 수준에서 젠더 정체성의 재구성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몸의 경험과 실제 세계의 몸의 경험이 서로 연계되며 상호 구성적이라는 점을 간과했다. 선덴(Sunden)의 지적처럼, “젠더, 인종, 계급으로 나타난 물질적 몸이 사이버 여행자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자 공간에 분명히 도입되고 재생산된다”는 점을 소홀히 한 것이다(2001, p. 225).

물질적 몸은 매개된 경험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준거가 된다. 사이버 공간이 실제 세계와 분리된 탈육화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의 몸과 긴밀하게 연결된 체현 공간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몸 자체도 고정된 자연적인 대상이 아니라 매개 경험에 의해 재구성되는 구성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방암에 걸린 여성들의 토론방을 연구한 피츠(Pitts, 2004)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은 단순히 몸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징적 자아를 만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몸에 대한 경험을 심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개인의 신체 경험을 상세한 부분까지 공유하고 여기서 공유한 경험을 다시 일상으로 가져오며 자신의 삶과 몸의 경험에 반영하면서, 사이버공간은 삶의 세계와 분리된 탈육화의 공간이 아니라 몸의 경험의 확인하고 확대되는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다. 다니엘스(Daniels, 2009) 역시 거식증 지지 사이트와 트랜스젠더 온라인 공동체 사례를 들어, 인터넷 공간이 몸의 가시적 재현이 없는 텍스트만의 공간이나 몸이 부재한 공간이 아니라 몸의 경험이 텍스트와 영상의 형태로 재현되어 소통되는 곳이고, 자신의 물리적인 몸을 통제하거나 변형시킬(날씬해지기, 젠더 정체성 바꾸기 등) 정보나 자원을 얻는 곳임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 배태된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물질적 몸의 재현과 경험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여성들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매개된 자기 재현의 과정 속에 젠더 체제에 저항하거나

타협하는 실천의 장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과 몸의 경험이 재구성될 수 있다. 영국 10대 소녀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연구한 링그로스(Ringrose & Barajas, 2011)는 소녀들이 자신의 디지털 정체성을 만들어가면서 과잉성애화된 자기 전시를 부추기는 포스트페미니스트 문화나 포르노 문화의 담론을 전유한다고 말한다. SNS의 공간에서 소녀들은 사회에 팽배한 음란 담론을 자기 나름대로 활용하고 수행해나가면서 자신의 여성성을 재구성해가고 기존의 성애화 담론에 이의를 제기해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나 상호작용이 전시되고 또래들의 젠더화된 시선에 노출되면서 공격받기 쉽고 온라인에서의 대인 갈등과 낙인이 일상생활로 이어진다. 또래와의 연결을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개인의 디지털 정체성을 구성하고 이러한 정체성은 SNS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적인 삶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매개된 세계에서 실천과 현실 세계의 실천이 매끄럽게 이어진다.

개인용 디지털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기의 상용화로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스위치를 켜고 ‘들어가야 하는’ 환상의 공간이 아니라 일상적 삶을 둘러싼 환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테크놀로지로 매개된 삶이 일상을 구성해가고 있는 현재의 맥락에서 초기 사이버페미니즘이 주목했던 물리적 세계와 분리된 ‘탈육화된 공간’으로서의 사이버공간 개념이나 이것의 탈젠더적 가능성에 대한 이상주의적 태도는 더욱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던지는 테크놀로지와 젠더와 몸의 상호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테크놀로지를 통해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젠더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여성주의적 전유를 지향하는 실천적 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지금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젠더 정체성이 형성되고 수행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며 젠더 체계에 대한 저항과 재생산, 수정과 타협의 실천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고 있다. 몸을 젠더(문화)에 대비되는 생물학적 기반이 아니라 문화적 젠더와 구분될 수 없는 “능동적 물질성”,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투쟁의 장소”로 볼 때(Sunden 2001, p. 228), 몸과 젠더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관계는 더욱 상호구성적으로 얽히게 된다.

이러한 몸-젠더-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관계에 있어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어떠한 위치일까? 브로피(Brophy, 2010)의 말을 빌리자면,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이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거나 가능하게 해주는 ‘내부-행위성(intra-agency)’을 통해 우리의 일상적 몸의 경험에 작동하며 젠더 체계를 (재)구성하는 문화의 과정에 개입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몸과 접합하여 내부행위성을 가지면서 매개된 경험과 실제 경험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 젠더 체계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몸과 디지털 테크놀로지 환경에 각인된 젠더 코드가 작동할 수 있고, 각각의 몸이 가진 차이 나는 물질성이 여성 주체에게 저항의 잠재적 현장을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환경에서 다양한 수준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젠더 질서의 재생산과 여성주의적 저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젠더 체계를 (재)구성하는 문화적 조건으로서의 테크놀로지의 특이성과 기술적으로 매개되고 확장되는 “살아있는 몸 혹은 의식적 커뮤니케이션 경험”(Langellier and Peterson, 2004, p. 167; Brophy, 2010, p. 941)간의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몸의 경험을 매개하면서 몸의 체현된 활동을 테크놀로지 특유의 물질적, 상징적 형식으로 재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돌아다닐 수 있게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각각의 몸이 가진 차이의 물질성은 여성 주체에게 저항의 잠재적 현장을 제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젠더 체계에 환원될 수 없는 몸들의 체현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시화되어 소통되고 이러한 매개 경험이

다시 물리적 몸의 체현 활동에 조건이 되면서 젠더 정체성을 재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몸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상하면서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특수하게 구성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동학을 재사유할 필요가 생긴다.

5. 맺음말

2008년에 미국에서 15세의 소녀가 사이버 따돌림(온라인을 통한 인신공격)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을 두고, 새삼 테크놀로지의 힘이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테크놀로지가 유발하는 비인간성과 특히 사회의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테크놀로지의 무게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어느 소셜네트워킹 전문가가 지적했던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많은 어린이들이 온라인에서 상처받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그들은 오프라인에서도 심하게 고통을 겪는다. 단지 그것이 더 눈에 잘 띄이는 온라인상의 일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테크놀로지를 비난하는 일에 더 집중한다”(Press, 2011, p. 107 재인용).

젠더와 테크놀로지, 혹은 젠더와 미디어의 문제를 ‘여성되기’로 파악한다는 것은, 테크놀로지가 단순히 여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이거나 재현의 수단이라고 보는 시각을 넘어서는 일이다. 또한 테크놀로지가 정체성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것이라는 결정론적 시각을 넘어서는 일이다. 이는 여성주의 미디어연구의 임무가 단지 미디어 재현이나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영향을 연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범주 혹은 페미니즘에 대한 우리의 걱정과 당혹스러움을 언급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프레스(Press, 2011)의 주장과 맥을 함께 한다.

‘여성되기’란 몸에 대한 심신이원론을 벗어나 몸을 생활세계와 연결시켜 인식함으로써 사회연결성을 주체의 핵심에 놓는 사유방식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물질적이자 상징적인 능동적 실천양식으로 몸의 작동을 이해할 수 있다. 몸은 처음부터 담론에 의해서 젠더화된 몸으로 반복적으로 구성되어 왔지만, 몸에 각인된 취향과 체험은 완전히 담론에 의해 포섭되지 않는다. 그 균열과 틈이 페미니스트들이 그렇게 생물학적 몸에서 떠나려고 했던 이유이면서도 동시에 체현된 주체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또한 그 틈이 무수한 성차를 허용하는 ‘여성되기’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며,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개입시켜 사유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지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칫 단순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논의로 비칠 수도 있지만, 버틀러가 말하는 ‘허물기’나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여성되기’는 단지 내가 중심이 되어 사회구조인 젠더의 개념과 싸워야 한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오히려 나의 중심성을 벗어나서 타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 즉 윤리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윤리적 태도 속에서만 ‘되기’와 ‘허물기’는 서로 반대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나 생존의 지속에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임태훈(2012)이 ‘우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처럼, 시대의 위기에 맞서 함께 시작하는 ‘공통되기(becoming common)’가 가능하다면, 몸은 저항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 ‘되기’를 욕망하는 신체들이 서로 만나서 힘을 얻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테크놀로지 혹은 미디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주체 사이를 연결해주는 테크놀로지의 기능 때문이 아니라, 개별 주체가 타자나 외부 생활세계와의 소통 감각을 열어두며 연대할 수 있게 해주는 테크놀로지의 잠재성 때문이다.

사이버페미니즘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탈젠더적 정체성과 여성들의 유대 가능성을 타진해보면서, 테크놀로지에 대한 전향적 시각을 선보였다. 초기 사이버페미니스트들은 생물학적 몸의 표식이 지워진 사이버 공간을 이상화시키는 한계를 보였지만,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공간을 몸과 젠더를 둘러싼 담론과 문화적 코드들이 경쟁을 벌이는 새로운 ‘전장’으로 부각시켰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몸의 영역과 경계를 재설정해준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체내화(incorporation)되면서 새로운 의미와 경험의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 때 우리는 테크놀로지의 특이성과 개인들의 행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이러한 환경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여기서 드러나는 여성들의 다양하고 때에 따라선 모순되고 불일치하는 (몸의) 목소리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그들이 어떻게 현재의 젠더 체계를 반영하거나 재구성하는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삶 속에 ‘여성되기’를 새롭게 전망해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비록 탐색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 논문은 정체성의 분석범주이자 정체성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몸’에 대한 관심을 ‘여성되기’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몸과 젠더와 테크놀로지의 복합적인 연결고리를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현재의 테크놀로지 환경에서의 ‘여성되기’ 연구는 몸-젠더-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다양한 접합의 지점들, 즉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일상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현장‘들’이나 디지털 정체성을 통해 개인의 삶이 구성되는 방식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는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들에서 기존의 젠더 구조와 질서가 어떻게 작동하며 강화되거나 도전받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론에서 예시했던 <나꼼수>의 사례는 이러한 젠더 체계에 대한 저항과 재생산, 수정과 타협의 다층적인 실천들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는 여성 몸의 재현 관습에 도전하는 몸의 유희적인 전시와 이를 성애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가부장적인 시선의 재생산이 충돌하고, 가부장적 태도에 저항하는 여성의 목소리와 이를 사변적인 것으로 취급하려는 남성적 목소리가 대치한다. ‘여성’의 범주 또한 단일하지 않다. 상업적 소비 공간의 소비 주체로서의 여성과 현실에 참여하는 정치주체로서의 여성은 서로의 차이를 드러내며 공존할 뿐 아니라, 한 몸의 여성 내부의 차이로도 존재한다. 어쩌면 자기 선택과 결정권을 강조하는 포스트 페미니즘은 이러한 증식되는 차이들의 일부를 보여주는 한 접면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가부장제로의 재영토화와 탈영토화의 ‘되기’ 과정의 일부의 이야기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꼼수>에서 나타나듯이, 여성들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여성과 그리고 세계의 다른 주체들과 접속하며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이버페미니즘의 실천을 배대하면서도 동시에 스스로 모순적이고 분열적인 여성 주체들이 다양한 담론들을 통해 동시에 생성된다. 여기서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할 점은 이러한 표면적인 사건 뒤에 몸-젠더-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접합하고 이러한 접합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젠더 정체성이 어떻게 (재)구성되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의 복잡다단한 여성 주체성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몸과 젠더와 테크놀로지의 삼자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관계를 사유할 인식론적 토대를 마련해보고자 시도했다. 부족하지만 이러한 사유를 통해 지금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여성되기’를 위한 여성주의적 전유의 실천의 가능성을 상상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각각 광범위한 주제 영역을 서로 연결시켜 하나의 탐구의 지점으로 제시하려다보니, 논의의 깊이를 더하지 못했고 구체적인 분석은 미처 시도하지도 못했다. 못 다한 부분은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놓고자 한다.

Ⅰ 참고문헌

- 김경례 (2007). 한국온라인 여성운동을 통해 본 사이버페미니즘의 정치성. 『젠더와 사회』 6(1): 101-129.
- 김수아 (2007). 사이버공간에서의힘돋우기실천: 여성의 일상생활과 사이버커뮤니티. 『한국언론학보』 51권6호. 346-380.
- 김영주 (2005). 하위주체여성의 몸: 스피박의 (불)가능성의 윤리, (pp. 116~140). 한국여성연구소 편 『여성의 몸: 시각, 쟁점, 역사』. 서울: 창비.
- 김종갑 (2011). 배려의 윤리와 정의의 윤리: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이희원, 이명호, 윤조원 외 지음. 『페미니즘: 사이와 차이』. 서울: 문학동네.
- 김진아 (2005). 몸주체와 세계: 메를로-퐁띠의 현상학적 신체론과 페미니즘. (pp. 20~44) 한국여성연구소 편 『여성의 몸: 시각, 쟁점, 역사』. 서울: 창비.
- 박미선 (2005). 변신과 유목에 능한 몸들: 들뢰즈·가타리와 브라이도티, (pp. 142~173). 한국여성연구소 편 『여성의 몸: 시각, 쟁점, 역사』. 서울: 창비.
- 박혜영 (2011). 생태 파괴 시대의 페미니즘. 이희원, 이명호, 윤조원 외 지음. 『페미니즘: 사이와 차이』. 서울: 문학동네.
- 백미숙, 이종숙 (2011). 한국 언론학에서 ‘여성주의/젠더 연구’의 지식생산 진단과 함의, 가능성의 모색, 『언론과 사회』 19(4), 162-231.
- 이명호 (2010). 로맨스와 섹슈얼리티 사이: 젠더 관계의 변화와 포스트페미니즘 문화현상. 『영미문학페미니즘』 18(1), 89~116.
- 이종수·최지혜 (2005). 사이버공간에서의 여성커뮤니티 문화: <우나쁜 여자가 되어 원하는 것을 다 가져라> 클럽의 사례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3호. 98-143.
- 임태훈 (2012). 『우애의 미디어로지』. 서울: 갈무리.
- 정화열 (2005). 『몸의 정치와 예술, 그리고 생태학』. 서울: 아카넷.
- Balsamo, A. M. (1996). *Technologies of the gendered body*. 김경례 옮김 (2012). 『젠더화된 몸의 기술』. 강원도: 아르케.
- Bordo, S. (1997). 몸과 여성성의 재생산, 고경희 외 번역 (2001).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조애리 역 (pp. 117~140.) 서울: 한울.
- Bortree, D. (2005). Presentation of self on the web: an Ethnographic study of teenage girls ‘weblogs’, *Education, Communication & Information*, 5: 1, pp. 25-39.
- Braidotti, R (1996). Cyberfeminism with a difference. *New Formations*. No. 29 (Autumn 1996): 9-25. (http://www.let.uu.nl/womens_studies/rosi/cyberfem.htm)
- Brophy, J. (2010). Developing a corporeal cyberfeminism: beyond cyberutopia. *New Media & Society*, 12(6) 929-945.
- Browne, S. (2009). Getting Cared: Border Control and the Politics of Canada’s Permanent Resident Card. In S. Magnet & K. Gates (eds.) *The New Media of Surveillance*. London: Routledge.
- Budgeon, S. (2011). *Third wave feminism and the politics of gender in late modernity*. UK: Univ. of Birmingham.
- Butler, J. (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Y: Routledge.
- _____ (2004). *Undoing gender*. NY: Routledge.
- Danet, B. (1998). ‘Text as Mask: Gender, Play, and Performance on the Internet’, in S. Jones (ed.) *Cybersociety 2.0*, pp. 129-58. Thousand Oaks, CA: Sage.
- Daniels, J. (2009). Rethinking cyberfeminism(s): Race, gender and embodiment. *WSQ: Women’s Studies Quarterly*

37(1&2): 101~124.

- Deleuze, G. & Guattari, F. (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김재인 옮김. (2001). 『천개의 고원』. 서울: 새물결.
- Fernandez, M., & Wilding, F. (2002). Situating cyberfeminisms. In M. Wright (Eds.), *Domain errors: Cyberfeminist practices!* (pp. 17-28). New York: Autonomedia. Retrieved from http://www.refugia.net/domainerrors/DE1a_situating.pdf.
- Garrison, E. K. (2000). U.S. Feminism-Grrrl Style! Youth (Subcultures and the Technologies of the Third Wave, *Feminist Studies*, 1 (Spring): 141-70.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and in the late modern age*. California: Stanford Univ. Press.
- Grosz, E. (1994) *Volatile Bodies: Toward a Corporeal Feminism*. 임옥희 역(2001). 『포비우스 피로서의 몸』. 서울: 여이연.
- Haraway, D. (1991).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New York; Routledge. 민경숙 옮김 (2002).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서울: 동문선.
- Harcourt, W. (1999). *Women @ Internet; Creating new cultures in cyberspace*. London: Zed Books.
- Hawthorne, S. and R. Klein, eds (1999). *Cyberfeminism: Connectivity, critique and creativity*. North Melbourne: Spinifex Press.
- Irigaray, L. (1977). *Ce Sexe Qui N'en Est Pas Un*. 이은민 옮김 (2000). 『하나이지 않은 성』. 서울: 동문선.
- Kearney, M. C. (2006). *Girls make media*, New York: Routledge.
- Kelemen, M. and W. Smith (2001). 'Community and its 'Virtual' Promises: A Critique of Cyberlibertarian Rhetoric',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4(3): 370-387.
- Kendal, L. (2000). "'oh no! i'm a nerd!' Hegemonic Masculinity in an Online Forum." *Gender and Society* 14(2): 256-74.
- Langellier, K. and E. Peterson (2004). *Storytelling in daily life: Performing narrative*.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 Latour, B. (1991). *Nous n'avons jamais été modernes: Essai d'anthropologie symétrique*. La Découverte. 홍철기 옮김 (2009).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서울: 갈무리.
- Magnet, S. and Rodgers, T. (2012). Stripping for the State: Whole body imaging technologies and the surveillance of othered bodies. *Feminist Media Studies*. 1~18.
- McRobbie, A. (2009). *The aftermath of feminism: Gender, culture, and social change*, London: SAGE.
- Millar, M. (1998). *Cracking the gender code: Who rules the wired world?* Toronto: Second Story Press.
- Modleski, T. (1991) *Feminism without women*. 노영숙 옮김 (2008). 『여성 없는 페미니즘』. 서울: 여이연.
- Nakamura, L. (2002). *Cybertypes: Race, ethnicity, and identity on the Internet*. New York: Routledge.
- Nouria-Simone, F. (2005). "Wings of Freedom: Iranian Women, Identity, and Cyberspace." In Nouria-Simone, F. Ed. *On Shifting Ground*. New York: The Feminist Press.
- O'Brien, J. (1999). Writing in the body: Gender (re)production in online interaction. In M. A. Smith & P. Kollock (Eds.), *Communities in cyberspace* (pp. 76-104). London: Routledge. 조동기 옮김 (2003). 『사이버 공간과 공동체』. 서울: 나남.
- Paasonen, S. (2011). Revisiting Cyberfeminism. *Communications* 36, 335-352.
- Plant, S. (1996). Feminisations: Reflections on women and virtual reality. In. L. H. Leeson (Ed.), *Clicking in: Hot links to a digital culture* (pp. 37-39), San Francisco: Bay Press.
- Press, A. (2011). Feminism and the Media in the Post-Feminist Era. *Feminist Media Studies*, 11(1): 107-113.
- Ringrose, J. & Barajas, K. (2011). Gendered risks and opportunities? Exploring teen girls' digitized sexual identities in postfeminist media contexts.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a and Cultural Politics* 7(2). 121-138.
- Shilling, C. (1993). *The body and social theory*. 임인숙 옮김 (1999). 『몸의 사회학』. 서울: 나남.

- Sunden, J. (2001). What Happened to Difference in Cyberspace? The (Re)turn of the She-cyborg, *Feminist Media Studies* 1(2): 215-32.
- Thomas, D. (1995). Feedback and Cybernetics: Reimagining the body in the age of the cyborg, Mike Featherstone and Roger Burrows (eds.). *Cyberspace, cyberbodies, cyberpunk* (pp. 21 ~43). London: Sage.
- Tuckle, S. (1995). *Life on the screen: Identity in the age of the internet*. Cambridge, MA: MIT Press.
- Wajcman, J. (2010). Feminist theories of technology.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4: 143-152.
- van Zoonen, L. (2002). Gendering the Internet: Claims, Controversies and Culture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7(1): 5-23.
- _____. (2013). From Identity to Identification: Fixating the Fragmented Self. *Media, Culture & Society*, 35(1): 44-51.

(투고일자: 2013. 03. 03, 수정일자: 2013. 04. 21, 게재확정일자: 2013. 04. 25)

ABSTRACT

Mapping the Relationship among Gender, Body and Technology: An Exploration for ‘Becoming Women’

Dong-Hoo Lee* · Su-Jeong Kim** · Hee-Eun Lee***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and technology in gender studies, this paper argues that ‘being women’ as an analytical concept is not fixed but progressing, that is, ‘becoming women.’ In the age of neo-liberalism, gender and identity politics raised critical questions regarding the relations between women and technology. Understanding these dynamic relations asks us to reconsider the concept of ‘body.’ Thus, this study begins with a review of the discourses of body in feminism and gender studies. Then, it continues to the meaning of technology in body and gender relations, arguing that body is the discursive and material site where gender identity and being are simultaneously constructed. An introduction of cyberfeminism, which focuses on the triangular relations among body, gender, and technology follows, discussing the significance of technology in ‘becoming women.’ Finally, it is argued that finding the meanings of technology in becoming women requires reconsidering the discursive and performative construction of body. ‘Becoming women’ can be achieved through exploration of the articulations and processes of body, gender and technology, which allows us to figure out the (re)construction of gender identity.

Keywords: body, gender, technology, becoming woman, cyberfeminism

* Professor, Mass Communicati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Communi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Journalism & Communications, Chosun University